

고은 불교대하소설

그가 본 합존불

우 너가 무색계의 어디 층에서 거의 추락하시피 수직으로 내려 오다가 그의 귀에 들려온 등' 소리는 무색계나 색계의 그것이 아니라 욕계의 그것이었다. 그 욕계 한쪽편의 소리를 어떻게 그 세상 밖의 까마득한 천상에서 들을 수 있던 말인가. 하지만 우녀는 그런 사실에 어떤 의심도 일으키지 않았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도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조급도 무리한 현상이 아니었다.

의 원시적인 합일(合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두 사람 어느 쪽도 눈이 없었다. 눈이 없다는 것은 그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 눈을 떠서 너와 나라는 분별을 아는 일이어말로 본질 혹은 본래면목으로부터 따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합일에서 분리 속과 너와 나로 하여금 서로 다른 상대인 별개(別個)로 나누어져 중생의 여러 현상을 그려내는 것이다.



140

원시적 합일의 기쁨속에 있는 인담과 합두를 본 순간 우녀는 타는듯한 아픔을 느꼈다

어는 것 하나 어느 일 하나도 다함없는 다라니(陀羅尼) 아닌 바가 없어야 하였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그저 스쳐버릴 수 없는 한 광경이 담겨서 색계의 여러 하늘을 지난 뒤에 그 광경만이 선명한 것이었다. 놀랍게도 그 광경 속의 남자는 인담이었다. 그와 함께 있는 여자는 아름다운 합두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 광경 때문인지, 우녀는 무색계의 어디에서 내려오는 동안의 무라각 상태와는 달리 그의 온몸이 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껴야 하였다. 그 아픔은 욕계 사바세계의 질투 따위와는 다른 내공적(內功的)인 아픔이어서 무척이나 정신 속에 가

그러서 최초의 합일로 돌아가는 본질적인 정진이 바로 너와 나로 나누어져 있는 생명을 하나로 만드는 수행(修行)이므로 생을 벗어나는 환희와 자유 그리고 이제까지의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 탄트라(Tantra)의 일이 아닌가. 그것은 부처님 입멸 이후의 금욕적인 장로불교나 그것에 생명을 붙여넣었던 대승불교를 지나 새로운 비의(秘義)에 의한 깨달음의 장면에 도달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바로 남자부처와 여자부처가 한없는 기쁨을 꽃피우는 성행위의 과상이야말로 남녀합합을 그려내는 합존불의 뜻이 아니었는가. 우녀는 그렇게도 평화로운 얼굴, 그럴

로 수행(修行)을 이어가는 그 광경과 초자연적인 기쁨에 대해서 거기에 귀의하는 사람들의 예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색계 천상의 그들은 아무런 예매도 바라지 않고 있었다. 앞으로의 무녀 역시 그의 무욕도에 돌아와서도 어떤 신도와의 관계도 없는 여생을 살아가고 하였다. 그것은 그가 누구의 교사가 되는 일도 그런 의무를 갖는 일도 아닌 상대의 자유 가운데서 그의 기쁨을 날고 싶은 소원 때문이기도 하였다.

인담과 합두는 그렇다치고 불이와 합두가 함께 있는 욕계 도리천 남쪽 상의 숲속은 바야흐로 어떤 괴이한 짐승이라도 그 안에서 천년쯤 숨어있다가 뛰쳐나온 것처럼 많은 것을 소장하고 있는 것이었다. 숲의 저쪽이나 바깥 윤곽만으로도 그 숲 내부를 채우고 있는 남치니는 힘을 느낄 수 있었는데 바로 그런 실감이 그곳을 천상보다 지상에 가깝게 만들고 있었다. 거기서도 불이는 지난 날의 기쁨있는 남치였고 합두는 아름답고 어떤 일이나 항상 휘파람을 내는 대로 성급함을 즐겼다. 그런데 그 광경 속의 합두를 기이하게도 고대의 한 여왕으로 떠올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선덕여왕이었다. 왜 우녀에게 합두와 선덕여왕이 함께 떠올랐는지 그 까닭은 알 길이 없지만 합두는 어느덧 옛 여왕의 얼굴로 되는 것이었다. 신라의 명림(明臨)에 앞서 말교승 12명이 당나라의 동해 천공을 막기 위해서 문두루(文豆婁) 비법을 행함으로써 말교의 사천왕사가 세워졌다는 사실이나 선덕여왕의 병이 명림과 함께 산 말본(密本)에 의해서 치유된 사실이 우녀의 마음 가운데 잠겨있지도 않았다. 그런데 우녀에게는 그 선덕여왕의 얼굴이 합두의 그것과 겹치는 것은 합두의 천생 어디와 선덕여왕의 후생 어디가 하나인 것을 알려주는 속명의 힘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는 도리천에서 도솔천 쪽으로 올라가 있는 만월 길상 순종의 세 쌍둥이도 알 수 있었다. 아니, 어린 아이도 살고 있는 상수의 한쪽 어깨에는 작은 흙터가 빛나고 있었는데 그 흙터는 무욕도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 것이었다. 상수의 송장(喪床)이 파도 때문에 민첩하게 뒤집혀질 때였다. 천생의 흙터가 다음 세상에 그대로 지남 것이라면 천생이나 다음 세상의 삶



“이곳이 다른 곳이 되는가” 무욕도의 현실로 돌아온 우녀는 ...

가운 것이었다. 그러리 그 아픔은 기쁨 이전이거나 그 이후였다. 아직 우녀가 본 적이 없는 시역 돈황 천불동 미고굴 속의 어느 어둠 속에 잠겨 있던 밀교(密敎)의 벽화가 바로 그가 본 남자부처와 그의 비(妃)가 서로 부동(不動) 안은 좌상(坐像)으로 합한(合歡)하고 있는 그 더없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벽화 앞에서 일찍이 불이와 합두가 있었거나 그 무렵의 합두에게 일어난 엄청난 혼란 가운데서 불이와 합두를 이끌어 그 혼란을 가라앉힌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합두의 경험이 영동하게도 이제 우녀의 것으로 건너온 것은 무슨 영문인가. 그것도 틀림없는 인담과 어떤 여자가 현몽으로 영계있는 것인데 그 여자가 열핏 합두로 보였다. 그것은 너와 나라는 분리된 상태 이전

제도 기쁨으로 넘치는 얼굴로 된 인담에 대하여 놀라움 투성이었다. 왜 자 스님이 저렇게 기뻐하고 있었는지? 우녀 자신의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그 기쁨은 우녀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힘이 있었다. 마치 그 인담이 우녀를 부동(不動) 안고 있더라도 한 것처럼. 아니, 인담과 우녀가 함께 그 기쁨으로 합일되어 있는 것처럼. 우녀는 인담의 상대방이 합두인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 기쁨이 다른 것으로 바뀌고 말았다. 아 나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무색계의 그 기쁨이 여기서는 아픔이 되고 있다 라고 우녀는 혼자만의 입을 열었다. 그 말을 들어준 인담이 없었던 것이다. 대일여래(大日如來)와 그의 아내인 미인이 앉은 채 서로 부동(不動) 안은 채 아주 잔잔한 호수의 잔물결같은 음악 그 자체

그것은 이제까지의 성(性)이 아닌 새로운 상에의 드넓은 기쁨으로 이어져야 할 우녀의 새로운 자유이기도 하다. 그는 그런 사람으로 무욕도에 돌아왔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성에 발을 디디자마자 그해 “웅” 하는 소리가 섬 전체를 울리며 들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꿈꾸는 창조와는 다른 쪽에서 그 창조에 기여하는 파괴의 소리가기도 한 것인가. 무욕도 율곡의 고사목과 살아있는 나무들이 이렇다할 바람도 없이 쓰러져 있었다. 웅! 소리와 함께. 그는 인담의 광경 이외에도 그가 내려오면서 스쳤던 것들을 뒤늦게 도착함으로 채색할 수 없었던 계수(齋壽)처럼 그의 기억 속에서 반복되기도 하였다. “세없는 일이다. 장난이다”라는 그의 독백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치된 마음 가운데서 그 직각한 기억들이야말로 재밌게도 춤추는 때문이기도 한 것이었다.

이란 얼마나 다른 것인가 하고 세상 그 운화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단념해 버리기 십상이었다. 우녀는 또한 효영 명오 상물(上物)이 아니라, 대배, 소석등을 그들을 어느 세상에서인지 모르지만 아주 짧은 시간 안에서 스쳐 버린 기억이 있었다. 오직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그들에게서 번뇌나 고민 따위가 전혀 없는 순진한 기쁨의 표정 밖에 볼 수 없는 사실이었다. 욕계의 천상뿐 아니라 지옥과 그밖의 중생계를 넘나든 그 오랜 고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그런 자취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열심히 청소를 끝낸 궁궐의 궁녀가 보여주는 무표정과 다를 바 없었다. 그는 그런 천상의 상들을 돌아볼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지옥이나 그밖의 중생계에 가서 그곳의 고통 속에 그 자신을 두고 싶지도 않았다. 기쁨이나 즐거움

도 슬픔이나 괴로움도 어느 한쪽만은 감당하는 덧없는 일이라면 그 일을 다 멈추어서 그것이 아닌 다른 상태에 그 자신을 두고 싶었던 것인가. 우녀의 시간은 무욕도의 현실로 돌아와 해가 뜨고 그 해가 지는 오랜 나날의 외로움이었다. 더이상 그는 이곳을 떠난 사람들의 현상과 닮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았다. 마치 어깨까지 빛나는 등불이었다가 오늘은 꺼져있는 그런 상태의 우녀는 초롱 초롱한 눈길도 잘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일도 이따금 잊어 버리고 지나쳤다. 배가 고프다는 사실이 아파도 살아있다는 실감이 아닌가. 그런 실감에 누누히 간파되는 무중력상태의 시간이 우녀의 시간이기도 하였다. 굳이 그런 실감을 어디다 견뎌내면 그것은 남자가 성을 통해서 도리어 성을 버리게 되는 상태일지 모른다. 그런 성행위의 절정을 넘어서 찾아오는 그 허상이아

말로 전혀 혼자인 우녀 속에서의 두 개의 자아가 이런 제각각 상상이기도 한 것인가. 이상한 일은 그런 우녀의 가나긴 관태와도 같은 고통 안에 이따금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예감이 난바다의 어딘가에 있는 담수처럼 확보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는 아주 많은 사원을 지을 것이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두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는 지금 혼자인 지 몰랐다. 아니, 그에게는 과거보다 미래가 훨씬 길기 위해서 현재의 어떤 공동(空同) 속에 그 자신을 담겨두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웅!” 삶에서 몇10리 떨어진 바다 북편에서 물기둥이 솟으며 그 소리가 났다. 우녀는 그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이곳이 다하여 다른 곳이 되는가.”

그림·조항숙

현기 프로젝트 직선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 현대불교신문의 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준,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디피어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 법회·행사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주소: 서울 서문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3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